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제20호
매사냥(박정오) (매사냥)



매사냥(박정오)

분 류	무형문화재
지정(등록)일	2007.03.23
소 재 지	전라북도 진안군
관리자(관리단체)	



시도지정 및 문화재자료는 각 지자체 담당부서에서 문화재정보를 입력·수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 지자체 담당부서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상 세 문 의 : 전라북도 진안군 문화체육과 063-430-2381~2, 8085

매사냥은 고조선시대 만주지방에서 풍습으로 전해오던 것이 삼국시대 이후 성행한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고려시대에는 국가에서 매사냥을 전담하는 응방이라는 관청을 두었고, 조선시대에는 이를 확대하여 내용방을 두었다. 일제시대 때 조선의 고유한 풍습이라 하여 금지했다가 해방 후 다시 소생했지만 현재는 거의 사라진 상태이다.

진안군 백운면 일대는 날짐승이 많고, 고원지대라서 눈이 많이 내리면 매의 먹이가 되는 꿩이 마을 가까이 물러왔으므로 옛부터 매사냥이 성행하였다.

지금도 백운면 출신인 전영태씨가 매사냥의 전통기법을 전수받아 전통 매꾼으로서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내레이션 

이미지



매사냥(박정오)



박정오



매사냥



사냥 모습

더보기

이전문화재 [매사냥](#)

다음문화재가 없습니다. [다음문화재](#)

[목록](#)

대전광역시 무형문화재 제8호
매사냥 (매사냥)



분 류	무형문화재
지정(등록)일	2000.02.18
소 재 지	대전광역시 중구
관리자(관리단체)	



시도지정 및 문화재자료는 각 지자체 담당부서에서 문화재정보를 입력·수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 지자체 담당부서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상 세 문 의 : 대전광역시 중구 문화체육과 042-606-6292

전통사냥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으나 매를 길들여 꿩이나 토끼 등을 잡는 매사냥은 그 역사가 오래 되어 고대 이집트, 페르시아 등지에서 행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이 사냥법은 인도에서 기원하였다는 설이 있을 만큼 인도지방에서 크게 성행하였고, 중국에서는 원나라 때에 유행하였다. 고구려 고분벽화의 매사냥 그림이나 『삼국유사』, 『삼국사기』 등의 매사냥 기록을 보면 우리나라도 오랜 옛날부터 매사냥이 성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간도(間島)와 북한지방에서 **해동청(海東靑)**이라는 우수한 매가 산출되어 중국과 일본에 수출하기도 했다. 매사냥은 특히 귀족층 사이에서 성행되어 고려시대에 매의 사육과 매사냥을 담당하는 관성인 **응방(鷹坊)**을 두기까지 하였다. 고려 충렬왕 때에 설치한 응방은 조선시대까지 이어졌으나 백성들에 대한 부담이 커 존폐 여부의 논란이 잦았다. 매사냥은 민간에도 크게 확산되어 일제하에서는 거의 전국적으로 행해졌다.

기능보유자 박용순은 어려서부터 아버지를 따라 다니며 매사냥에 익숙하였고 초등학교 5학년 무렵 이미 새매로 매사냥을 시작하였다. 군 복무중에도 사육사로 매를 사육 훈련하며 꾸준히 매사냥을 지속해 온 박용순의 매조련과 사냥 방법은 전통성을 충실히 계승하고 있다.

내레이션

이미지



매사냥(1)



매사냥(2)

동영상



매사냥



[한국의 세계유산 홍보영상] 제3편 한국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정은표] 05편 겨울철 사냥놀이, 매사냥



왕들의 스포츠 매사냥

더보기

이전문화재 이전문화재가 없습니다.

매사냥(박정오) 다음문화재

목록

Falconry

Daejeon Metropolitan City-designated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no. 8

Date of designation: February 18, 2000

Location: Jung-gu, Daejeon Metropolitan City

Historical records show that falconry is a time-old tradition of hunting to catch pheasants and wild rabbits by flying trained falcons, which was widely practiced in ancient Egypt and Persia. It prevailed in India, where some argue that the tradition was originated from. In China, it was popular during the Yuan dynasty. On the Korean peninsula, falconry was also practiced from ancient times, as evidenced by mural paintings from the Guryeo period and the records in *Samguk yusa* (Memorabilia of Three Kingdoms) and *Samguk Sagi* (History of Three Kingdoms).

There was a time when falcons from the Gando (Jiando) region and provinces in the present DPR Korea, particularly called *haedongcheong* (meaning “a falcon with blue feathers”), were exported to China and Japan. It was popular among aristocrats during the Goryeo dynasty (918-1392), and under the reign of King Chungryeol, the Office of Falconry called ‘Eungbang’ was established to breed and train falcons. Although the agency continued to exist through the Joseon dynasty (1392-1910), it became a matter of controversy very often as it put heavy burdens on commoners. During the colonial period, it was spread among commoners as well and practiced nationwide.

Master Park Yong-sun learned from his father the skills as a child and began his practice in his early teens. He provided his military service as a falcon trainer and has faithfully inherited the tradition.

Falconry (Master Park Jeong-o)

Jeollabuk-do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no.20

Date of designation: March 23, 2007

Location: Jinan-gun, Jeollabuk-do Province

Falconry was presumed to be practiced in Manchu area during the Gojoseon period and became popular in the Three Kingdoms of Korea. The Goryeo dynasty (918-1392) established and operated an agency called "Eungbang" specialized in falconry, which was later expanded into "Naeungbang" during the Joseon dynasty (1392-1945). The practice was banned by the Japanese colonial power, being considered as a tradition of Joseon, though it revived after liberation. However, the tradition has faded away with time.

Baekun-myeon in Jinan is a plateau area inhabited by many wild fowls including pheasants, which move toward nearby villages during the snowy season, thus creating an environment best suited for falconry.

Currently, Master Park Jeong-o succeeds to the practice as a recognized traditional falconer.